

불교방송 사태 배경과 일지



부천석왕사 신도 500여명이 지난 5일 불교방송을 항의 방문, PD협성명의 발표경위를 듣고 있다.

교계에 확산되고 있는 불교 방송 사태는 지난달 24일 불교방송PD협회가 「불교방송을 음해하는 것은 세력들에 경고한다. 제하의 성명을 생방송으로 방송함으로써 불복했다. 불교방송PD협회의 성명서 발표배경과 24일 이후 교계의 잇따른 항의등을 일지식으로 정리해 본다.

“괴문서 운운” 방송

△2월 15일 불교기자협회 「불교방송 신문창간에 대한 불기협 의 입장」을 밝혔다.

△2월 16일 조계종 임시총회와 때맞추어 「불교방송국 정상화 방안」이란 문건이 불교방송국에 입수됐다. 이 문건은 종회 안전상향 자료였으나 불교방송은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괴문서」로 규정했다. △2월24일, 오후 5시10분~6시 까지 방송되는 「무명을 밝히고」 프로그램을 통해 이영준·D가 「불교방송을 음해... 제하의 성명을 생방송으로 방송했다. 이 성명에는 종회 자료 「불교방송국 정상화방안」을 괴문서로 지목했으며 「불문수심(佛面心)」, 「고스름으로 삼보정체를 탐진하는」 등의 삼보비방 문구가 들어있었다.

잇따른 교계 항의

△2월1일 전국불교총연합이 성명을 발표, 2월24일의 성명 생방송은 언어폭력이라 규정하고 공명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2월5일 부천 석왕사 신도 연합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불교방송국의 자정·개혁을 촉구하며 종단특위구성도 요구했다.

같은날 석왕사 신도 500여명이 불교방송을 항의 방문했다. △5월5일 동국대석립동문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석립동문회는 성명을 통해 「불교방

송 신문창간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성명서 방송 관련자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3월9일 실천불교승가회의장단 및 임원스님 10여명이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방문 「불·방 사태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대해 항의했다. 또 불교방송 책임이사장을 방문 사태의 책임을 지고 김태호사장을 해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 대응

△3월4일 총무원이 불교방송에 「관련자 최고수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3월6일 종회 사회분과위원회가 「불교방송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명진스님 간사에 지만스님, 위원에 각현, 여연, 진관스님이 위촉됐다.

△3월7일 불교방송대책소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PD협회의 성명서와 불교방송국의 운영실태등을 검토, 「경정한 대응」에 의견을 모았다. 3월 정기총회에 상정키 위한 각종 자료 및 비리사태도 수집키로 했다.

△3월10일 소위원회가 불교방송 재단이사장 종하스님, 포교위원장 제원스님, 기획실의실장 종훈스님 등을 출석시켜 사태의 전말을 들었다.

불교방송 사과표명

△3월7일 오후 5시40분 「무명을 밝히고」 프로그램을 통해 2월24일 성명서 생방송과 관련된 사과방송을 했다. 불교방송 PD협회는 사과방송에서 「성명서는 정정하신 스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정정수호에 앞장서는 불자로서의 자세에서 조금도 벗어난 입장이 아니었다」며 「갑자기 저희들의 입장만 강조하는 방송을 전파에 실어 청취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해 드린 점을 방송인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표명했다.

문체부 종교재산 보호 안내서 발간

사례별 질의응답 집도... 교육실시·종교 신문고 운영

문화체육부는 각종 종교단체 재산에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종교재산보호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서를 지난 6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각종 법률에서 종교재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과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개정,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도표참조).

이와 함께 종교재산이 무기역제와 가계약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각종 법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근 개선된 내용과 현행 세법에서 종교재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종교보호 재산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재산과 사찰·불당 등의 의식을 행하는 건축물, 사찰건축부지, 주차장, 의식용품, 예

배용품이 적용된다.

이들재산은 현행세법상 △재산 압류금지 △가부금 손비처리 △관세감면 혜택과 △법인세, 특별부과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상속세가 면제되고 △토지초과이득세, 증여세, 면허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주민세,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밖에도 문화체육부는 지난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거나 과세유예기간을 연장케 하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법인인 종교단체도 고유번호를 가지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한 바 있다.

문화체육부는 앞으로 종교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교재산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산관리에 관한 사례별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종교재산관리의 불합리한 사

구분	개설내용	과거
과세유예기간 연장 ·취득세 등세 ·토지초과 이득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증여세	토지취득후 3년 토지취득후 3년 토지취득후 3년 종교단체 출연재산 사용기간 3년	토지취득후 1년 토지취득후 1년 토지취득후 3년 종교단체 출연재산 사용기간 2년
비과세 범위 확대 ·보전임대 종교시설 주변 임야의 토지초과 이득세 ·경의 사택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경의 주자택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종교사찰에 대한 상속세 ·세 중세 ·종교단체 고유목적 사업용 재산의 재산증여 증여세	개발 종교단체도 비과세 성적자는 면제 (상적지 범위는 별도고시) 경의 300m까지 허용 면제 면제	종교법인에 한해 비과세 담임목사만 면제 경내에만 인정 불복청 다수인 출연 재산 추정 과세
법인적 없는 종교 단체도 세법상 법인 적용	법인적이 없는 종교단체도 관할 사무시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세법상 법인 적용	법인적 있는 단체만 세법상 법인 적용
종교 단체 금융거래	법인적 없는 종교 단체에 교육 연호 부여	법인에 한해 교육연호 부여

항을 관계부처와 협의, 보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문화체육부는 종교에 대한 민원 제한, 정책적인 등을 수렴키위한 종교신문고(이용전화 02-720-1994)를 운영중이다. (김원우 기자)

2차대전 희생동포 영가천도재 봉행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양복 50주년 해외 희생동포 영가천도재」를 관·사이 관 등지에서 봉행한다.

종단 대표스님과 국회정각 회장 권익현의원을 비롯 80여명이 동참하게 될 이번 법회에는 2차 세계대전시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 했다.

제5회 졸업식 봉행

진각대학 지난 14일 진각종 진각대학(학장 도훈)은 지난 14일 통리원장 및 신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5회 졸업식을 총인원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승가대학 사회문제연구 창립

중앙승가대학 부설 사회문제연구소(소장 영담스님) 창립법회가 지난 6일 정진관 대강당에서 학장 승산스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조계종

25명이 졸업하는 이날 졸업식에서 정재문씨가 총인상, 김우식씨가 학장상, 김봉갑씨가 통리원장상을 각각 수여받았다.

수덕사 성지순례 백련장학회

백련장학회(회장 송준희 법사)는 21일 창립5주년 기념 수덕사 성지순례를 갖는다. 또 25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생활불교회관에서 장학기공증 성지순례를 개최한다.

이날 전사회에는 월하종정스님, 수덕사 원담스님, 서경보스님, 승산스님의 사제자들과 산전 아산선생의 그림 등이 전시된다.

‘불교적 이상사회’ 주제 워크샵

진월스님 ‘한국에서 본 대승불교...’ 발표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태국 응카악의 원사님 아취람에서는 「불교적 이상사회(The Dhammic Society)」를 주제로 한 워크샵이 열렸다. 사회 참여 불자 국제연합

회장단 단합법회

전태종 중앙청년회
전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창립 24주년 전국청년회장단 단합법회’를 속리산 파크호텔에서 개최한다. 전국 1백50여명의 회장단이 동참하게 될 이번 단합법회는 종정 김도용스님 및 전국청년회장단의 상건례와 함께 속리산 문장대 일대에서 환경운동을 펼친다.

서의현 BBS이사 지분포기 촉구

전승련·실천승가회 “개혁불사 여행”
지난 2일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의장 각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불교방송 이사회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 「서광룡(의원스님 숙명)이 개인 재산을 불교방송에 출자했다는 이유로 그 지분포기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개혁불사의 의지를 짓밟는 행위」라고 단정짓고 「불교방송 이사회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또 실천불교승가회 공동회장 지선 정화도 지난 1일 「불교방송 이사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제하의 성명을 내고 △불교방송 이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불교도에게 사과하라 △불교방송 이사회는 이번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서 전원장을 조건 없이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이 성명에서 서 전원장은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공개하고 이사추천을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불교방송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중앙총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불교방송 이사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서 ‘경불단전’ 개최

동가들이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지론을 펴다.
전통적 공예품의 메카로 불리워지는 일본 경도에서 2월 10일부터 3일간 경도부불구협 주최로 주최로 (경불단·경불동진)이 개최되었다. 금년으로 30회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전통공예품에 불구의 이해를 돕기위한 목적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 하이라이트

- btn**
영화실황(11월 13:30~14:20)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서옹스님과의 대담을 통해 구도의 길과 원로로서의 몸가짐과 생활지침을 들려준다. 장성 백양사 주법의 스케치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가운데 서옹스님은 부처마음을 개발하여 인류는 참어아닌 하나라는 인식하에 참세계를 열자는 법문과 교훈을 덕담으로 들려준다. **한국의명칭(13일 11:10~12:00)** 임진왜란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의 충혼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웠던 표창상이 있는 표창사. 수려하고 아름다운 영산구성으로 표창사의 역사와 고승들의 발자취를 찾아 본다. **실크로드(13일~16일 12:30~13:20)** 1928년 서안으로 바뀐 현재의 모습과 최근에 출토된 유적들을 더듬어 본다. 세계 최초로 촬영한 1979년 당시의 진시황의 무덤과 만리장성, 세계 최대규모의 축천 무후의 묘 등 귀중한 유물이 자세하게 소개된다. **지하의 천수천(14일 11:10~12:00)** 10년동안 폐렴과 중풍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해온 아버지는 끝내 방송중 눈을 감고 어머니마저 건강을 잃는다. 어렵지만 곳곳에 살아가는 일상시간의 모습을 통해 고민과 생활을 함께하며 학업중단의 기로에 서있는 임상민군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자비살한 방안을 모색.
- BBS**
님의 길을 따라서(8일~15일 16:40~17:00) 부처님 생애의 주요사건들을 입체영상으로 들려주고 부처님이 이땅에 와서 얼마나 오래까지를 팔상도로 나뉘어 방송한다. 8일 도솔래의 상/ 9일 비람강랑상/ 10일 사문유관상/ 11일 유승출가상/ 12일 설산수도상/ 13일 수하항마상/ 14일 복원전법상/ 15일 쌍림열반상이 방송되며 아문문학가 신현숙씨가 팔상도의 문화적 가치와 교리적가치를 이야기한다. **절대평화로서의 열반(15일 10:05~10:55)** 고은선생의 열반절 특집 법문을 들어보는 시간. 현대불교신앙이 마련한 문화적강화의 강연을 다시 들어본다. 불교는 길의 종교이다. 어디에 교정되지않고 어디론가 떠나야하는 종교이다. 부처님은 길에서 나고 길에서 깨달으며 길에서 전법하고 길에서 열반에 이르는 길... 세계로 가는 음악여행(12일 22:00~22:55) 발리의 전통민속음악은 가멜란이다. 음의 고저가 없는 경상음악의 경지를 느끼게끔은 가멜란에 천천히 빠져들게 한다. 여행가 손호원씨가 출연하여 인도네시아의 전통음악, 민속, 팝, 록음악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악수를 나누는 것이 관례이지만 왼손은 절대금물.

방송 단신

- 불교TV 제2차 주식공모**
불교텔레비전(대표 태웅스님)은 오는 20일부터 제2차 불지주식을 공모한다.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9월 2천5백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구회관에서 제1차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수천자본을 법정한도 납입자본금의 4배인 1천1백1십만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정관변경을 승인했다. 이로서 2차주식공모는 6월 20일까지 3달간 2백여원의 청약금을 모금하고 행정비용의 증가로 인해 최소청약단위를 20주(10만원)로 상향조정했으며 1주당 5천원으로 2만주(1억원)까지 청약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프로그램 개선 논의** 불교방송 포교위원회(위원장 제원스님)는 7일 오전 11시 12명의 포교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5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개선부분을 논의하고 인력보충과 주인의식 확립방안 등을 방송국측에 건의키로 했다. **‘카루나’ 제작 발표회** 불교영화 ‘카루나’ 제작발표회가 지난 10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개최됐다. 제작발표회에서는 이일목감독을 비롯하여 목소리등 주연급 배우들의 인사와 ENG 현 필름제작사회가 있었다. **방송분회장 구태서씨** 불교방송보도부 구태서처장이 6일 한국기자협회 불교방송분회 제7대분회장으로 선출됐다.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십니까?

게르마늄(Ge-32)의 효과

온돌침대는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계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 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 피로회복·불면증·비만 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건강 상담실 운영

한국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침대를 수맥방지 돌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서 및 팸플릿을 보내드립니다.